

격 려 사

존경하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69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빌면서, 보훈가족으로 남다른 긍지와 애국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향군인회의 화합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완도군재향군인회 정옥현 회장님과 6.25 참전 완도군지회 임익현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재훈 대대장님과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자회 완도군지회 가족여러분!

평화와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한의 정상회담과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의 아픔을 앞당기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전세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에서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여러분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군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그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가치 있는 결실로 기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을 통해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전쟁이 남긴 의미와 교훈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완도군재향군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